

2012년 10대 식품안전사고 중간점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식품안전사고들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소비자의 신뢰 또한 잃어가고 있다. 가짜식용유(地溝油:바닥기름), 농약잔류, 가소제 등 각양각색의 식품안전문제들이 소비자들의 생활을 점점 위협하고 있으며, 2012년이 곧 저물어 가고 있는 지금, 올해 한해 우리들이 겪었던 주요 식품안전사고를 다시 조명해 본다.

1. 통화금마(通化金馬) “독캡슐(毒膠囊)” 의혹에 연루되어, 영업실적 처음으로 225% 폭락

금년 4월, 언론매체에서는 일부 불법생산기업이 공업용 젤라틴을 사용해 의약캡슐을 제조했으며, 게다가 여러 의약기업들에 의해 사용되었다고 폭로하였다. 이런 “독캡슐”은 크롬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발암물질의 위험이 존재한다. “독캡슐” 사건과 관련된 9개 기업 중, 유일한 주식상장 기업인 통화금마의 주가 가격은 6개월 동안 10% 이상 하락하였으며, 시장 가치 또한 2.4억 위안이 증발하였다.

주가 가격 손실뿐 만 아니라, “독캡슐” 사건 발생 후 통화금마의 일부제품은 리콜 조치를 당했으며, 심지어는 금년 3분기 영업실적이 583만 위안 적자, 이윤은 225% 하락하여, 상장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보았다. 통화금마 이외에 “독캡슐” 사건은 여러 상장기업들로 하여금 폭락, 영업정지, 영업침체 등을 야기시켰으며, 투자자들 또한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회사소개>

통화금마의약그룹주식회사의 총자산규모는 10여 억 위안이고, 그룹 산하에 9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서 선정한 “제약회사 50강”기업임. 통화금마 그룹은 장백산 남록(南麓)에 위치해 있으며, 소재지인 통화(通化)시는 “중국의약성(城)”으로 불림. 이 지역은 자원이 풍부하고, 산수 또한 청정한 중국 5대 의약창고 중의 하나로 불려오고 있음.

2. 건강원(健康元) 가짜식용유 사용 의혹

가짜식용유(地溝油:바닥기름)가 일부 식당과 심지어는 가정에 까지 유입됐다는 사실은 이미 모두가 아는 진실이다. 게다가 일부 회사에서는 의약품료 정련용으로 사용하였다. 금년 8월 말, 언론매체에서는 건강원의 의약품료 정련용 “가짜식용유” 대량 구매 혐의를 폭로하였고, 이 소식이 전파된 이후 여론이 분분하였으며, 건강원은 신속히 거래 중지를 발표했다.

<회사소개>

건강원약품(藥業)그룹주식회사는 2003년 9월 29일에 발족하였으며, 그룹의 전신은 태태약품(太太藥業)주식회사로써 1992년 12월 18일 대형의약기업을 창립하고, 2001년에는 상해증권거래소 상장에 성공하였다. 현재, 건강원약품그룹은 이미 원료의약품, OTC(일반의약품), 처방의약품, 보건의약품의 4개 영역에서 전문화와 종합성을 겸비한 제약기업으로 성장하였

다. 건강원그룹은 이미 국가 GMP인증을 통과한 현대화 시설을 갖춘 대형 제약공업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제품은 호주약물관리국(TGA)의 GMP심사를 통과하여, 호주 GMP를 획득하였다.

3. 광명유업(光明乳業) 3개월 간, 5차례의 품질안전문제 발생

광명유업에게 2012년은 상당히 불안정한 한해였으며, 광명유업의 제품품질안전문제는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주었다. 학생들이 광명우유를 마신 후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청소용액체가 우유 중에서 검출되었으며, 저지방 치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 되었다. 유리포장 우유에서는 부패한 맛이 났으며, 어린이용 치즈에서 위법한 우유농축 무기질이 검출 되었다.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광명유업은 5차례의 품질안전문제가 폭로되었고, 3차례의 공개사과를 하였으며, 상해시정부로부터 2차례의 공개비평을 받고, 정리개혁 명령과 벌금납부 처분을 받았다.

<회사소개>

광명유업은 50년이 발전과정을 거쳐, 현재 신선우유, 요구르트, 치즈 시장점유율이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광명유업의 영업수입은 68억 위안이고, 순이익은 3.2억 위안 이었다. 같은 해 광명유업은 “상해시 품질관리 금상”을 획득하였고, 광명유업 기술센터는 국가가 인증한 기업기술센터 50위에 올랐다. 동시에 《재부중국(財富中國)》에서 선정한 “중국에서 가장 많은 업계지도력을 갖춘 상장기업”으로 선정되었고, 현재까지 “중국 500강 기업”에 속해있다.

4. 이리(伊利)실업그룹의 영유아용 분유제품이 수은함량이상으로 리콜되었으며, 하루 동안 시장가치 40억 위안 증발

최근 몇 년 동안 분유업계의 품질안전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리그룹은 매년 품질안전문제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금년 6월 12일, 국가 식품안전국은 이리그룹의 일부 영유아용 분유에서 수은함량이상을 발견하고, 이를 후인 14일에 이리그룹은 문제의 분유에 대한 리콜을 발표하여, 2011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의 기간에 생산한 《전우》(全优) 2, 3, 4단 분유를 긴급 회수했다. 당시 주식가격은 개장과 동시에 하락하여, 개장 하루 동안 시장가치 40억 위안이 증발하였다.

<회사소개>

내몽고 이리실업그룹은 전국유제품선두기업중의 하나로써, 국가 520개 중점 공업기업 중의 하나이자 국가 8개위원회가 처음으로 비준을 확정된 전국 151개 농업산업화 선두기업 중의 하나임. 지난 2008년 북경올림픽 당시 유일한 유제품 후원업체이자,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을 후원하게 된 유일한 중국 식품브랜드이다. 또한 2010년 상해세계박람회 후원기업이기도 하다.

5. 주귀주(酒鬼酒) “가소제(플라스티사이저)” 함유 사건에 연루

금년 중국 주류업계에 풍파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건으로는 단연 “가소제” 사건을 들 수 있다. 지난 11월 19일,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제 3의 기관에서 검측한 주귀주에서 기준치 보다 260%가 넘는 가소제가 검출되었고, 그 후 국가질검총국이 실시한 검측에서는 주귀주의 가소제 함량이 위생부 기준치 보다 247%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주귀주의 주식가격은 폭락한 가운데 점차 회복 중에 있지만, 백주업계의 소화제 사건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12월 3일 소식에 의하면, 모태주(茅台酒)가 투자자들에 의해 감사의뢰를 당했으며, 당시 백주 관련 주식주는 전체 6.6%까지 하락하였고, 모태주는 7%가 넘게 하락하였다.

<회사소개>

주귀주주식회사의 전신은 1956년 세워진 길수주창(吉首酒廠)이고, 회사주식은 1997년 7월 심천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주귀주는 “중국유명상표”, “전국술문화우수기업”, 전국“5.1노동절 상”, “전국경공업시스템선진기업”, “전국선진기업” 등의 영예를 획득했다.

6. 고정공주(古井貢酒) 알코올 첨가 의혹으로 시장 가치 8일 만에 32억 위안 증발

금년 8월, 언론매체는 고정공주가 상반기에 6000여 통의 알코올을 구매하였고, 일부 제품에 알코올을 첨가해 생산에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고정공주기업은 이 소식이 전해진 후 곧바로 성명을 통해, 알코올은 저가제품에 사용된다고 해명에 나섰다. 8월 22일부터 8월 거래 마지막 날까지, 고정공주의 시장가치는 20% 이상 감소하여, 32억 위안의 손실을 보았다.

<회사소개>

고정공주는 “중국 8대 명주” 중의 하나로, 생산지는 안휘성 호주(亳州)시 이다. 고정공주는 일찍이 “전국 술 평가회”에서 4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으며, “국가명주” 칭호를 획득했다. 1988년 “제 13회 파리국제식품박람회”에서 1위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했다.

7. 장유(張裕)포도주에서 잔류농약 검출 의혹

금년 8월 10일, 한 언론매체에서는 장유포도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장유의 중국A주 주식가격은 지난 2년 기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장유회사는 연이어 내부회의를 개최하고, 발표를 통해 농약잔류사건의 배후에는 막후세력이 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발생한 백주 가소제 사건에서 보면, 가소제의 단독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 농약잔류 또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회사소개>

포도주브랜드인 장유(張裕)상표는 100여년의 발전을 통해, 현재 아시아에서 생산경영규모가

가장 큰 포도주 생산기업이 되었다. 1997년과 2000년 장유는 중국B주식과 중국A주식에 상장을 성공했으며, 2002년 7월, 장유는 중국공업경제연합회가 선정한 “세계진출 국가경쟁력이 가장 큰 16개 민족브랜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장유 포도주 브랜드는 세계브랜드가치실험실(WBL)에서 편제한 2010년도 “중국브랜드500강”에 선정되었고, 브랜드 가치는 89.27억 위안에 달한다.

8. 고월용산(古越龍山) 발암물질 검출 의혹을 받아, 황주업계에 발암물질 풍파를 불러옴

이미 위에서 언급했던 백주와 포도주 이외에, 금년 6월 15일 홍콩소비자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고월용산의 3년산과 5년산의 황주에서 발암성분이 있는 고분량의 우레탄이 검출됐다. 이 보고서가 폭로된 직후인, 6월 20일 고월용산 주식가격은 6% 넘게 하락했다.

앞서 언급했던 백주, 포도주와 같이 국내 황주 우레탄 함량에 대한 공식기준이 없다.

<회사소개>

절강성 고월용산 황주 주식회사는 중국 최대의 황주 생산기업으로, 일류의 황주생산설비와 전국 유일한 성급(省級) 황주기술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황주 연간 생산량은 13만 톤으로, 고월용산은 황주생산기업 중에 유일하게 “중국유명브랜드”, “중국유명상표”, “국가만찬주” 선정된 브랜드이다.

9. 쌍회(双匯)그룹의 수육정(瘦肉精:클렌부테롤)사건 여파와 미생균 균락(菌落) 기준치 초과

2011년 수육정사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쌍회그룹은 금년에도 여전히 품질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금년 5월 27일에는 쌍회의 소시지에서 구더기가 발견됐다는 소비자들의 호소가 있었고, 28일에는 관련 기사가 대량으로 전파됐으며, 29일에는 쌍회그룹은 성명을 통해, “구더기”사건을 완곡히 부정했었다.

비슷한 시기 중국 광주 공상국에서 진행한 유아용 식품에 대한 샘플추출검사 결과에서는, 쌍회그룹의 한 소시지 제품에서 미생물 균락(菌落) 총수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전에 이미 수많은 식품품질안전문제들을 겪었던 쌍회그룹의 학습효과로 인해, 주식가격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5월 29일 주식가격은 단지 2% 하락하는데 그쳤다.

<회사소개>

쌍회그룹은 육류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 식품그룹이다. 현재 전국 18개 성과 도시에 가공기지를 설립하였고, 그룹 산하에는 육제품가공, 생물공정, 화공포장, 쌍회물류, 쌍회양식, 쌍회제약, 쌍회소프트웨어 등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총자산규모는 200여 억 위안이고, 직원수는 65000 명이다. 2010년 “중국기업500강”에서 160위를 차지하였으며, 2010년 중국브랜드가치 평가 중에서, 쌍회의 브랜드 가치는 196.52억 위안이었다.

10. 레이빈(來伊份)제품 시장 출시과정 중에 “밀전(蜜餞:설탕이나 꿀에 절인 과일)” 식품안전사고 발생

금년 4월, “중국레저식품 제 1브랜드”로 불리는 상해 레이빈회사는 주식공모예비발표를 1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식품품질안전문제 스캔들이 폭로되어, 적지 않은 제품들이 매장에서 퇴출됐으며, IPO(기업공개) 또한 불허되었다. 증권감독위의 10월 발표에서는, 레이빈회사의 IPO 불허원인은 최종적으로는 “밀전” 식품안전스캔들에 있다고 밝혔다.

<회사소개>

1999년 창립한 레이빈(중국어:라이이펀)회사는 레저식품생산경영을 전문으로 하고, 제품 중에는 견과류, 과일절임, 육제품 등 총 7개 분류 700여종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2500여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고, “상해시 유명상표”, “상해유명브랜드”, “2010상해 박람회특허제품 소매상” 등의 영예를 얻었다.

※ 자료원 : 베이징aT센터

< 저작권자 © aT농수산물유통공사 & Kati.net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